

“대구 광역전철망 도심역사 4개소 신설”

市, 구체적 계획 마련

2009년까지 타당성 조사·설계

2012년 구미~경산 구간 완공



기존 경부선을 활용한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영남일보 2006년 11월22일자 1면 보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2009년까지 타당성 조사 및 설계를 거쳐 2012년까지 1단계(구미~경산) 구간을 완공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은 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이 새로 건설되는 효과와

함께 탁월한 환승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시는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2010년 KTX 대구 도심구간이 완전개통되면 기존 경부선(복선)의 여유시설을 적극 활용, 대구 광역권 전철망을 구축키로 했다. 전철망이 운영되면 대중교통시설이 취약한 철도변과 대구·경북지역간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지하철이나 버스 등과의 환승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돼,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구시는 사업구간을 장기적으로

김천~구미~대구~밀양(125.5km)으로 잡고 있다. 급행 및 보통전철로, 대구 도심의 선상역사 4개소(상리·평리·비산·망우) 신설을 포함, 총 24개로 운영할 예정이며 1단계 구미~경산(59.6km·15개 역사)과 2단계 김천~구미(22.9km·3개 역사) 및 경산~밀양(43km·6개 역사) 등으로 단계별 건설된다.

1단계 670억원(2008~2012)과 2단계 360억원(2013~2014) 등 총

사업비 1천3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2단계의 경우 교통수요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타당성 조사비 6억원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2010년 KTX 개통에 따라 철도변정비사업과 전철망 구축사업이 함께 추진돼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운행시스템이나 동차기종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차운행 규모나 운

행간격은 2~4량에 8~20분(러시아 위 기준) 간격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사업이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면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생기는 자투리 땅을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가격경쟁력을 비롯, 편리성과 연계성 측면이 부각될 뿐 아니라 대구·경북 위성도시간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인한 경제 및 인적교류 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남권 수도로서의 중심기능 강화와 함께 도시기능의 집중과 분산을 통한 새로운 발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